

# 왕의 무덤, 편히 잠들 수 없는 역사



최상의 법문은 죽음이요, 왕은 권력의 정점이다. 권력의 정점에 앉았던 이들의 죽음은 최상의 법문일까. 죽은 뒤에 누구나 숙연해진다. 하찮은 미물의 죽은 앞에서도 경건해진다. 500년 조선 왕조의 영육을 온몸으로 받다가 이승을 하직한 왕들의 무덤을 찾아간다. 거기에 그들이 있다.

왕은 죽지 않는다. 아니 죽지 못한다. 육신은 소멸되었으나 그들의 행적은 불멸이다. 잊혀지길 원해도 잊혀질 수 없는 시퍼런 역사로 살아 있다. 피를 동반한 야심과 패기로 권좌에 올랐든, 열김에 떠밀려서 왕이 되었든 불멸의 이름을 달고 놀다란 봉분 이불 아래 누워 있다.

누워있는 그들을 깨워 권좌의 영광과 애환을 들여보자. 생전 당시에는 결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했을 테지만 이젠 발치까지 성큼 다가가 무례한 자세로 술잔을 건네고 담판을 지을 수 있다. 그때 왜 그리 난폭하셨는지? 얼마나 재웠었는지? 우째 자식이 그리 많았는지? 상상 없는 감옥이라 얼마나 고독했는지? 잠깐 짚고 곁에 선 무인석을 향해, 근무 딱바로 서시오! 제멋대로 떠돌아도 처형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을 최상의 법문이다. 최상의 법문은 자비다.

조선 왕조 518년, 27대 역대 왕과 왕비, 추존 왕과 왕비가 있다. 이들의 무덤을 능(陵)이라 한다. 조선 왕릉은 현재 42기가 있다. 원(園)은 왕의 사친, 왕세자와 그비의 무덤이다. 13기가 있다. 묘(墓)는 대군, 공주(왕의 처녀), 공주(왕의 서녀), 후궁, 귀인 등의 무덤이다. 64기가 있다. 신분에 따라 분류한 능, 원, 묘를 합쳐 조선 왕조 왕족의 무덤은 모두 119기다. 분류상 서글픈 역사도 있다. 10대 연산군, 15대 광해군의 무덤은 능이 아니라 묘로 불린다. 회복될 수 없는 업보다.

능의 형식은 분묘 조성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단릉은 왕과 왕비의 봉분을 별도로 조성한 단독 형태다. 장릉(단릉), 건원릉(태조), 정릉(중종) 뿐이다. 쌍릉은 한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을 나란하게 마련한 형태다. 삼연릉은 한 언덕에 왕, 왕비, 제비의 세 봉분을 나란하게 배치한 형태로 24대 현릉의 경릉(현종, 효현왕후, 효정왕후의 무덤)이 유일하다. 동원이강릉은 하나의 정자각 뒤로 한 언덕의 다른 줄기에 별도의 봉분과 상설을 배치한 형태다. 성종 14년(1483) 정희왕후가 세조의 능 옆 언덕에 모셔졌으므로 동원이강 형식을 이룬 광릉이 효시다. 동원상하봉릉은 왕과

## 능·원·묘 합쳐 왕족 무덤 119기 단릉 등 형태는 권력 성쇠에 결정 연산·광해군 묘 격하 서글픈 역사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의 위아래에 걸쳐 조성된 형태다. 합장릉은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형태로 조선 조 <국조요역>에서 정한 조선 왕실의 기본 능제다. 삼봉삼실의 삼합장릉은 왕, 왕비, 제비를 함께 합장한 형태로 유릉(순종)이 유일하다.

단릉이든 합장이든 권력의 성쇠,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 씨를 지극히 사랑해 강비가 죽자 도성 안에 능을 만들었지만(정릉, 현재 영국 대사관 자리) 태조가 죽자 태종은 강비의 무덤을 양주 사한리(현 성북구 정릉동)로 이장해버렸다. 강비를 후궁으로 강등해 능을 묘로 격하시켰다. 죽으면 끝인 게 세속의 이치지만 권력과 연루되면 죽어도 끝이 아니다. 서울 중구 정동과 성북구 정릉동은 그런 사연에 의해 붙여진 지명이다.

영조는 조선 역대 왕 중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52년). 영조는 생전에 현 서릉 자리에서 자신의 수묘(묘)를 만들었지만 영조가 죽자 정조는 그것을 버리고 반대쪽 동구



릉 쪽으로 가서 능을 조성했다. 그 자리는 100년 전 효종 왕릉이 있었던 자리다. 파묘한 자리에 할아버지 영조를 묻은 것이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기 때문이다. 복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하의 경우 부관참시(무덤을 파서 시체를 토막 내는 형벌)도 있다.

죽어서도 편히 못자는 자, 살아있는 자만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자, 그들의 이름이 왕이다. 권좌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들은 언제나 동시대인과 함께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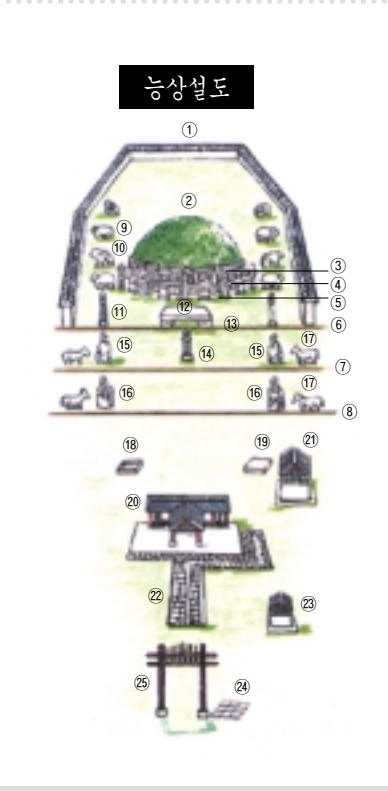
어디들 계산가. 21세기에 다시 무덤을 파헤치고 옮기는 일이야 있을까만 참으로 편지 않다. 지명수배가 필요 없다. 그들의 소재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다. 그래도 권좌는 좋은 거야! 지금도 무수한 잠룡들이 하나 뿐인 그곳을 향해 전력질주 하고 있으니.

2007년은 1년 내내 '대선정국'이 시대 코드다. 조선 왕릉의 영육을 통해 정국의 해법을 찾아본다.

글=이우상(소설가)·사진=최진연(사진작가)

### 조선 왕릉 일람

대수	능호	묘호	형식	사적	주소
1대	건원릉	태조	단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정릉	신고황후	단릉	208호	개성시 만문군 상도리(북한)
	후릉	정종	쌍릉		서울 성북구 정릉2동 산 87-16
2대	정릉	정안왕후	쌍릉		개성시 만문군 광정리(북한)
	현릉	태종	쌍릉	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3대	영릉	원경왕후	합장	196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현릉	세종	합장	196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4대	현릉	문종	동원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현릉	현덕왕후	이강		
5대	장릉	단종	단릉	196호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21-1
	시릉	정순왕후	단릉	209호	경기도 남양주군 진건면 사릉리 산65
6대	광릉	세조	동원	197호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무명리 247
	정릉	정희왕후	이강		
7대	창릉	예종	동원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30-1(서오릉)
	공릉	인순왕후(계비)	이강		
8대	공릉	정순왕후	단릉	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불암리 산5-1
	경릉	덕종	동원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추존	선릉	성종	동원	199호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35-4
	순릉	정현왕후(계비)	이강		
9대	연산군묘	연산군	쌍분	362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불암리 산 15-1
	연산군묘	부인 신씨	쌍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산 75번지
10대	정릉	중종	단릉	199호	서울 강남구 삼성2동 135-4
	온릉	단경왕후	단릉	210호	경기도 양주시 왕흥면 일영리 산 19
11대	희릉	정경왕후(계비)	단릉	200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서삼릉)
	태릉	문정왕후(계비)	단릉	201호	서울 도봉구 공릉동 산 233-19
12대	효릉	인종	쌍릉	200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37-1(서삼릉)
	인릉	인성왕후	쌍릉		
13대	강릉	명종	쌍릉	201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 233-19
	목릉	신조	동원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14대	목릉	의안왕후	이강		
	목릉	인목왕후(계비)	이강		
15대	광해군묘	광해군	쌍분	363호	경기도 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59번지
	광해군묘	부인 유씨	쌍분		
추존	정릉	원종	쌍릉	202호	경기도 김포시 통무동 산 141-1
	정릉	인원왕후	쌍릉		
16대	정릉	인조	합장	203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산 25-1
	인릉	인명왕후	합장		
17대	희릉	장렬왕후(계비)	단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영릉	효종	쌍릉	196호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18대	송릉	연승	쌍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송릉	명성왕후	쌍릉		
19대	명릉	숙종	쌍릉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명릉	인현왕후(계비)	단릉		
20대	인릉	인원왕후(계비)	단릉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인릉	인영왕후	단릉	204호	서울 성북구 석관동 1-5
21대	혜릉	선의왕후(계비)	단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원릉	영조	쌍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22대	홍릉	정순왕후(계비)	단릉	198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산 30-1(서오릉)
	영릉	신종	동원	205호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불암리 산 15-1
추존	영릉	효소왕후	이강		
	영릉	효소왕후	이강		
추존	영릉	장조	합장	206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평리 1-1
	영릉	한경의왕후	합장		
22대	건릉	정조	합장	206호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평리 1-1
	건릉	효의신왕후	합장		
23대	인릉	순조	합장	194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인릉	순수왕후	합장		
추존	수릉	문조	합장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수릉	신정왕후	합장		
24대	경릉	현종	쌍릉	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번지(동구릉)
	경릉	효현왕후	쌍릉		
25대	예릉	철종	쌍릉	200호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 산 37-1(서삼릉)
	예릉	철인왕후	쌍릉		
26대	홍릉	고종	합장	207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홍릉	명성대왕후	합장		
27대	유릉	순종	합장	207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41-1
	유릉	순정효왕후(계후)	합장		



- 왕릉의 기본구조
1. 곡장(曲牆) - 왕릉을 보호하기 위하여 삼면으로 둘러놓은 담장.
  2. 능침 - 왕, 왕비의 봉분, 능상(陵上)이라고도 한다.
  3. 병풍석 - 봉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밑 부분을 두르는 12개의 돌. 병풍석에는 12쌍의 돌 나뭇잎을 새겨서 봉분을 해방 방위에 맞게 양각하였다.
  4. 난간석 - 봉분 주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봉분 둘레에 설치한 돌난간. 가장 높은 기둥을 석주, 석주를 가로지른 돌기둥을 축석(竹石), 축석 중간을 받쳐주는 기둥을 통자석이라 한다.
  5. 지대석 - 병풍석의 면석 밑을 받쳐주는 기초 부분.
  6. 상계(上階) - 능원은 장대석으로 구분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가장 높은 상계는 왕, 왕비의 침전인 능침이 자리한다.
  7. 중계 - 문인석과 석마가 세워진 중간 단.
  8. 하계 - 문인석과 석마가 서 있는 하단. 문물 숭

9. 석양(石羊) - 능침은 왕궁의 침전인데 이곳에 틀어놓을 수 있는 신분은 내시뿐이다. 석양은 채홍사 임무를 담당하는 내시이기도 하다.
10. 석호(石虎) - 능침을 지키는 호랑이 모양의 수호신. 경호 임무를 맡은 내시.
11. 망주석(望柱石) - 봉분 좌우측에 각 1주씩 세우는 기둥. 그 기능에 대해서는 육신에서 분리된 혼이 육신을 찾아갈 때 멀리서 봉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설 등이 있다.
12. 혼유석(魂遊石) - 일반인의 묘에는 상석이라 하여 제물을 차려놓는 곳이지만, 왕릉은 정자각에서 제물을 올리므로 혼유석이 남아 있는 곳이라 한다.
13. 고석(高石) - 혼유석의 받침돌로서 모양이 북을 닮았다 하여 북이름이다.
14. 장명등(長明燈) - 왕릉의 장생발복을 기원하는 뜻으로 세웠다.
15. 문인석 - 장명등 좌우에 있으며, 언제든지 왕령에 복종한다는 자세로 양손으로 흠을 쥐고 서 있다.
16. 무인석 - 문인석 아랫단에 석마를 대동하고 있으며, 왕을 호위하고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뜻에서 장검을 쥐고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17. 석마 - 문인석과 무인석은 각각 석마를 대동하고 있다.
18. 예감 - 정자각 뒤 서쪽에 제향 후 축문을 태우던 곳으로, 석함, 소대(소전대), 망료(망료)라고도 한다.
19. 산신석 - 정자각 뒤 오른쪽, 보통 예감과 마주 보는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장사 후 3년간 후토신(땅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20. 정자각 - 제향을 올리는 곳으로 황제는 일자로 양으로 침전을 조성하고, 왕은 정자모양의 정자각을 조성함.
21. 비각 - 비석이나 신도비를 안치하는 곳. 신도비는 능 주인의 생전의 업적을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이다.
22. 참도(參道) -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폭 3미터 정도로 물을 깔아놓는 길이다. 원폭의 약간 높은 곳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신도라 하며, 오른쪽의 임금이 다니는 길은 어도라고 하여 약간 낮다.
23. 수복방 - 능을 지키는 수복이 지내던 곳으로 정자각 동쪽에 지었다.
24. 배위 - 홍살문 옆에 한 평 정도 물을 깔아놓는 곳. 판위, 아배석, 망룡위라고도 한다.
25. 홍살문 - 홍살문은 능, 원, 사당 등의 앞에 세우며,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문이다.

### 작가 약력

**이우상**  
 ● 동국대 국문과 졸업  
 ● 1996년 문화관광부 지정 '문학의 해 기념' 불교문학상 장편소설 당선  
 ●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소설 당선  
 ● 현 대전대, 동국대 문예창작학과 출강

**최진연**  
 ● 제6회 대한민국사진대전서 '대상' 수상  
 ● 개인전 11회 개최  
 ● 제41회 한국사진문화상 수상 및 최진연 사진연구회 대표. 주요저서: <한국의 성곽> <옛 다리-내미음속의 풍경> 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 (등표 조경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참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하남시 교신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